

지역 소식통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25팀 선발 10월 13일 본선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예선 무대에 진출할 25팀이 지난 19일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전했다.

이날 동영상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강원도, 서울, 부산, 대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북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사전에 신청한 196팀 385명이 경합을 벌였으며 그중 기량이 뛰어난 25팀이 최종 선발전했다.

작년에 처음 개최한 제1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에는 63팀이 접수했으며 올해는 196팀이 접수해 첫째 대비 3배가량 참가팀이 증가해 1년 만에 전국 최고 동요제로 급성장했다.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10월 12일 오후 3시부터, 본선은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보건의료, 27일 피부과 무료 진료

정읍시보건의료는 오는 27일 한국산학기술협회 전북지부와 협력해 시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무료 진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읍시보건의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되며, 피부 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센병은 미코박테리움 레프라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피부와 신경을 침범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경계 합병증으로 사지의 무감각 등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센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무료 진료에서는 한국한센학회 전북지부 소속 의료진이 참여해 한센병, 습진, 건선, 만성 피부염, 무좀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료하며, 처방도 무료로 제공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확정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수박연합회에 최종 등록... 고창수박 프리미엄 UP

대한민국 수박의 명품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확정됐다. 고창수박의 프리미엄 가치 향상은 물론, 향후 망고, 멜론, 보리 등 우수농산품의 지리적표시제 성공 가능성도 높였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창수박연합회(대표 김연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소식을 전달 받았다.

김연호 고창수박연합회 대표는 "오랜시간 준비하고 여러차례 고창과 서울을 오가며 고생한 날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품의 지



적재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박재배능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오던 숙원사업의 결과다.

앞서 지역농가들은 그동안 마을 개별 작목반으로 활동했던 농가모임을 2020년 사단법인 고창수박연합회로 통합 발족, 품질균일화를 위한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지리적표시제'를 신청

했다. 여기에는 고창수박이 정의되고 시장에 내놓을 수박품질(당도 11브릭스 이상 17작 등) 기준이 포함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제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표시제도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합부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고창군은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 1970년대 대단위 야산 개발자에 의해 시작하여 50년 이상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현재의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24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부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감콘서트 공연 큰 호응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24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가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 및 차별과 폭력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댄스, 색소폰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축하 카드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더 드림 부안아카데미와 함께, 공감콘서트가 가페라 가수 이현의 공연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15개 여성단체 회원 250여명이 가입돼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하순례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일상 속 양성평등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하는 평등한 부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평등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 도시 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16회 부안곰소젓갈축제, 10월 3~5일 개최

핑크퐁 공연 · 야간포차까지 다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어

전국에서 젓갈의 명산지로 꼽히는 부안 곰소에서 제16회 부안곰소젓갈축제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는 곰소젓갈발효소품센터 앞 특설 행사장에서 '곰소의 재발견' 누구나 즐기는 '젓갈'이라는 주제로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부터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인다. 기존의 유명 트로트 가수 중심 공연을 탈피하고 뮤지컬 '조선세프 한상궁', 쇼킹라이트 군조 크루, 가수 윤수현이 출연하여 색다른 공연을 펼친다. 특히 '조선세프 한상궁'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기리에 진행 중인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이번 축제만을 위해 특별히 각색되어



어린이 손님을 겨냥한다. 메인 무대에서는 핑크퐁과 튜브밴의 댄스퍼포먼스가 오후 2시에 열리며, 센터 뒤편인 상평이존에서는 오후 1시 퍼포머의 풍선쇼, 오후 4시 파르텐 아미고의 피아노 4중주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내일은 나도

트롯왕 무대에서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들의 경연이 열리며, 이어서 축제의 백미인 곰소 율놀이 대회가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국내 1호 젓갈 소믈리에 강지영 대표가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김치·젓갈 체험, 새우잡이 체험, 연전체험, ESG 공예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부안 농특산물, 수산물, 곰소소금 등의 판매도 진행되며, 젓갈 및 지역 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축제 준비위원회는 관광객들이 젓갈의 본고장인 곰소를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심찬 준비를 마쳤다.

말리 곰소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젓갈과 액젓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신중년 · 디지털 문해교육 취업 연계 일자리 창출

정읍시는 24일, 2024년 제3차 일자리 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3분기 일자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시는 현재까지 98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 대비 97.1%의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일자리 창출은 3단계 상생일자리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

터, 청년지원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일자리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구직자 연령층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성인문해 전문교육사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신중년층의 경력과 기술

을 살린 일자리 지원과 디지털 성인문해 교육 수요자들의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정책 추진단장인 송금현 부시장장은 "오늘 논의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성인문해 교육사 취업 연계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진행된다.

국토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등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고창군은 사업지구 조정금에 대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착수 후 적극적인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적재조사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2013년 공음 석교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6개 지구 7733필지



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대상 6508필지의 84%를 완료했다. 올해도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5개 사업지구 1225필지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다.

유성룡 고창군 종합민원대장은 "토지분쟁 해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